

중국 고대의 올빼미 이미지에 대한 小考

이 연 주*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주대 이후의 올빼미 |
| II. 올빼미에 대하여 | V. 언어 속에 반영된 올빼미의
이미지 |
| III. 신석기시대와 상대의 올빼미 | VI.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도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올빼미는 자주 접하게 되는 새가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 천연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농촌에서도 그럴 듯하다. 올빼미 하면 우리는 그저 밤과 그 울음소리 정도를 떠올리는데, 고대문헌을 뒤지다 보면 올빼미는 효(鴞=梟) 또는 치효(鴟鴞)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詩經》에 등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며, 이어지는 시기의 문헌을 볼 때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일관되게 계속되어 한대에 이르면 불효한 새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워지게 된다. 한편 이는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주대 이후에 사용된 올빼미가 들어간 어휘 몇 개를 예로 들어보면, ‘梟鳥’는 악인 또는 불효자, ‘梟音’은 사악한 소리, ‘梟心’은 흉심 또는 야심, ‘梟徒’는 폭도, ‘梟笑’는 수상적이고 섬뜩한 웃음, ‘梟星’은 불길한 점괘(星命), ‘梟鸞’은 소인과 군자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를 일컫는다. 이처럼 올빼미는 악하고 추한 것의 대명사로 언어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 고대에 올빼미의 이미지가 이처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문헌 기록은 없지만 신석기시대와 상대까지만 해도 출토된 기물을 통해 드러나는 올빼미는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비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물과 문헌, 그리고 언어기록을 통해 중국 고대¹⁾의 올빼미 이미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에 문헌적 기록이 없는 신석기시대와 상대에 대해서는 일차로 기물을 통해 올빼미의 이미지를 고찰해보고 서주시대 이후는 문헌 및 언어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의 토대로 앞부분에서 올빼미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참고로 중국에서의 본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76년 하남성 은허의 왕실묘인 ‘부호(婦好)묘²⁾’가 발굴되면서 정교한 올빼미형 준(鴞尊)과 옥기를 포함해 다수의 올빼미 유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이에 즈음해 1979년 刘敦愿³⁾이 중국 고대에 있어 올빼미류에 관한 호오관(好惡觀)과 그 변천을 고찰한 〈中国古代有关鴞〉

- 1) 중국사 연구에서 고대라 할 때는 흔히 한대까지를 일컫는다. 관련해 리평(2017, p.19)은 “고대 중국(Early China)’은 동아시아 인류사의 시작부터 서기 220년 동한 왕조의 멸망까지 장구한 시기를 이른다. …… 중국 문명 토대의 상당 부분이 형성된 개시기로서” 라고 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編 《고대 중국의 이해》(시리즈)와 같은 책에서도 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엄밀한 역사적 개념을 갖고 고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구분을 참고하였으며, 언어 속에 반영된 올빼미의 이미지에 대해 기술한 V장을 제외하면 기물이나 문헌적 기록에서 올빼미가 주로 출현하는 한대까지를 다루었다.
- 2) 婦好는 상나라 22대 군주인 武丁의 妃로 기록상 중국 최초의 여장군이며 갑골 기록에 따르면 羌, 土方 등 方國을 무정의 명을 받아 정벌했다. 부호의 묘는 지금껏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은왕실의 묘로, 청동기, 옥석기, 상아기 등 거의 2000건에 달하는 부장품이 발굴되었는데, 이 중 청동기가 486건이며, 다수의 청동예기에 ‘婦好’ 또는 ‘好호’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이들 기물 중 효준(鴞尊), 甗(甗), 卣(卣), 卣(卣) 등의 청동기와 옥기에 다수의 효형기물(鴞形器物)이 있다. (百大百科 ‘婦好’ 참고)
- 3) 刘敦愿(1918~1997): 저명한 역사학자, 미술이론가, 고고학자. 산동대학에 재직하면서 중국 고대사와 고고학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업적을 남겼다. (百大百科 ‘刘敦愿’ 참고)

类的好恶观及其演变》(1979)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로 상대를 포함한 고대에 올빼미가 어떤 상징의 동물이었는가와 청동기나 옥기 등 관련 기물에 집중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본 주제와 관련한 소개나 논문이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⁴⁾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고대의 올빼미 이미지에 대해 개괄함으로써 국내에 이를 소개하고 관련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올빼미에 대하여

올빼미는 동물학적으로 부엉이, 소쩍새 등이 포함되는 올빼미목(Strigiformes, 중국에서는 鵞形目이라 한다.)에 속하는 새로, 야행성 맹금류이다. 서양에서는 부엉이, 올빼미를 구분 않고 owl이라 칭하며,⁵⁾ 한자에서는 鵞, 鵞(梟), 또는 鵞鵞(鵞梟)라는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현대적 구분으로는 鵞鵞는 鵞形目 아래의 科이다. 현대중국어에서는 ‘猫頭鷹’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휘 사전인 《爾雅》에는 《釋鳥》에 “鵞鵞는 鵞鵞이다”(35), “狂은 茅鵞이다”(36), “怪鵞는 梟鵞이다”(37) 등의 풀이가 보이며, 《說文解字》〈鳥部〉에 “鵞는 鵞鵞이며, 亭鵞이다”(2377), 〈萑部〉에 “萑은 鵞屬이며, 毛角이 있다.”(2310)⁶⁾ 등의 내용이 있다. 고대의 기록이라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여기서 鵞鵞은 참새과에 속하는 작은 새를 칭한 것으로 보이는데⁷⁾ 올빼미류 가운데 작은 새를 칭한 것인지는 확실하

4) 관련 분야를 다룬 국내 논문으로는 상대 사람들의 갑골문에 새 토템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갑골문에 반영된 상왕조의 새 토템 고찰〉(윤창준, 2002)이 있다.

5) 대신 horned owl(뿔 올빼미), eagle owl(수리부엉이)과 같이 명칭으로 그 類를 구분한다.

6) () 안의 번호는 《爾雅》와 《說文解字》의 해당 글자에 대한 번호로 검색 편의를 위해 표시하였다.

7) 《詩經·鵞鵞》의 《毛傳》에 “鵞鵞는 鵞鵞이다”라고 했는데, 陸璣의 《疏》에

지 않다.⁸⁾ 또 鴟, 鴞(梟), 또는 鴟鴞(鴟梟)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으나 구분하기 어렵다. 《莊子·秋水》에 “鴟鴞는 밤에는 벼룩도 잡을 수 있고 터럭 끝도 볼 수 있지만, 낮에 나와서는 눈을 크게 뜨고도 큰 산을 보지 못한다. 이는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鴟鴞夜撮蚤, 察毫末, 晝出瞋目而不見丘山, 言殊性也)”라고 했는데, 올빼미의 특징을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상으로는 《시경·치효》시에 올빼미가 최초로 등장한다. 한편 鴟, 鴞(梟), 또는 鴟鴞(鴟梟)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올빼미와 부엉이, 수리부엉이 등의 명칭 사이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구분이 쉽지 않은데⁹⁾ 이들이 모두 올빼미 목(鴞形目)에 속하고 중국 고고학계에서 이들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기물을 일괄해 ‘효형기(鴞形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올빼미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칭하기로 한다.

야행성 맹금류로서의 올빼미의 특징을 살펴보면, 올빼미는 대표적인 야행성 맹금류로 매나 독수리를 낮의 제왕이라 한다면 밤의 제왕이라 불린다. 크기에 비해 대단히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힘센 다리를 갖고 있으

“鴟鴞는 黃雀(참새과에 속한 새)과 유사하며 (몸집이) 작으며, ... 幽州에서는 鸛鳩이라고 하고, 또 巧婦라고도 하고, 女匠이라고도 한다. 關東(함곡관 동쪽)에서는 工雀이라고 하고, 또 過羸이라고도 하며, 關西(함곡관 서쪽)에서는 桑飛이라고 하고, 또 襪雀이라고도 하며, 巧女라고도 한다.(《毛傳》: “鴟鴞, 鸛鳩也.” 陸璣《疏》: “鴟鴞似黃雀而小……幽州人謂之鸛鳩, 或曰巧婦, 或曰女匠; 關東謂之工雀, 或謂之過羸; 關西謂之桑飛, 或謂之襪雀, 或曰巧女.”)”고 했다. 《詩經·小毖》에 “처음에는 정말 저 작은 뱀새가 날개 펼쳐 날 때는 큰 새(肇允彼桃蟲, 拚飛維鳥)”라는 구절이 있는데, 김학주(2010)는 주해에서 “桃蟲은 鷦鷯라고도 부르는 조그만 벌레 같은 새”라고 풀이했다. (김학주 2010, 882쪽)

- 8) wikipedia(‘owl’)를 참고하면, 올빼미(owl)는 가장 작은 올빼미인 쇠참새올빼미(elf owl)의 경우 13.5cm의 크기인 반면 유라시아 수리부엉이의 경우 이들 중 큰 암컷이 71cm(날개 길이 190cm)에 달한다. 다만 《詩經·鴟鴞》시의 치효의 경우 시 중에 화자로 등장하는 어미 새의 안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어 참새과에 속하는 작은 새, 또는 위 쇠참새올빼미와 같은 작은 새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 9) 일례로 김학주 역저 《새로 읊긴 시경》에서는 치효를 ‘부엉이’라고 번역하였으나(김학주 2010, 426쪽) 《새로 읊긴 서경》에서는 이 시를 ‘올빼미 시’라 하였다. (김학주 2012, 377쪽)

며, 청각이 매우 발달해 먹잇감이 초목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감지해 캄캄한 밤중 숲 속의 암흑 한가운데에서도 청각 하나만으로 능히 사냥을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깃털이 부드럽고 비행 시 날갯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밤에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많지 않다. 한편 그 생긴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 중앙에 위치한 크고 둥글며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한 두 눈과 눈 주위의 면반(面盤), 날카롭고 휘어진 부리, 머리 위로 솟은 모각(毛角) 등이 특징이며, 몸체를 돌리지 않고도 양쪽으로 목을 180도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올빼미의 특징과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적막을 뚫고 들리는 독특한 울음 소리는 고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리라 생각되며, 동시에 올빼미가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주로 잡아먹는다는 사실에서 숲 가까이에서 촌락을 이루어 생활하던 고대인들에게 올빼미는 농사에 매우 유익한 동물로도 인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刘敦愿(1979)에 따르면,¹⁰⁾ 고대인들은 어두운 밤, 몽환, 죽음 이 세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 신비감을 느끼면서 또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는데, 올빼미류는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고대인들에게 이런 자연현상의 화신이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비한 동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 측면과 그들의 관념을 통해 고대인들이 올빼미에 대해 경외와 숭배의 情을 가졌을 것은 쉽게 이해된다.

이들 올빼미는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석기 시대의 프랑스 동굴 벽화¹¹⁾에서 보듯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관심을 끌어왔다.¹²⁾ 또한 역사시대에 들어서도 이집트 벽화에 자주 등장

10) 刘敦愿, 〈中国古代有关枭类的好恶观及其演变〉, 《山东大学文科论文集刊》 02期, 1979, 217쪽.

11) 쇼베동굴(Chauvet Cave, BC30000년 경), 레 트루아 프레리스 동굴(Les Trois Freris Cave, BC17000년 경) 벽화가 있다. 구글 검색창에서 'owl, 동굴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12) 중국의 인류학자인 卞舒宪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고고학적 증거로부터 선사

하는 것을 비롯해¹³⁾ 많은 문화권에서 올빼미에 대한 이런 저런 믿음이 있어 왔다. 따라서 올빼미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새이지만 경외와 숭배, 각종 신화와 이미지가 덧씌워져 온 새라 할 수 있다.

Ⅲ. 신석기시대와 상대의 올빼미

올빼미는 중국내의 신석기 문화 유적지 곳곳에서 이미 기물을 통해 널리 나타나며 상대에 이르면 이의 형체를 본뜬 청동기(주로 예기)나 올빼미가 주요 문양으로 등장하는 청동기물이 다수 등장한다. 다만 이 시기에는 상대 갑골문이 있기는 하나 올빼미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물을 통해 당시 올빼미의 이미지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추측해볼 수밖에 없으며, 간혹 후대 기록으로 이 시기의 고사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해 추리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본고가 기물을 세세히 다루고자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간단히만 살펴보면, 올빼미형 기물(鴞形器)은 옥기, 석기, 청동기, 도기 등에 걸쳐 중국내 신석기 유적지 곳곳에서 출토되며, 실용 기물, 제사용 기물, 부장물 등이 모두 발견된다.¹⁴⁾ 이는 이들 기물이 일상생활, 종교제사, 장례 등에 폭

시대의 종교예술이 집중 표현하던 중심테마는 종종 이 시대 사람들의 맹금류에 대한 숭배와 신화와 관계가 있으며, 때와 올빼미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叶舒宪, 《神话意象》, 北京大学出版社, 2007年版, 第51页. 饶胜 2016, 9쪽에서 재인용)

13) 고대 이집트에서 올빼미는 예리한 사냥꾼으로 존송되는 한편 슬픔(mourning)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다. 올빼미를 그린 벽화와 부조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죽은 이의 영혼을 안내하는 ‘사자의 서’에 등장하기도 한다. 죽은 이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길을 지켜보는 동물이며, 사후의 세계에서 주인을 돕기도 한다. 올빼미의 울음은 그해 포도의 풍년을 예고하는 전조로 인식되기도 했다. (‘Owls in Ancient Egypt’ - EGYPTOLOGY BLOG 참고. <https://www.atthemummiesball.com/owls-ancient-egypt/> 최종검색일: 2021.12.15.)

14) 饶胜, 《鴞形器研究》, 河南师范大学硕士论文, 2016, 11쪽.

넓게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황하, 요하, 장강유역 등 중국내 신석기 유적지 곳곳에서 출토되었으며,¹⁵⁾ 주요 유물로 도기로 만든 올빼미항아리(鴞罐), 올빼미솥(鴞鼎), 올빼미물병(鴞壺), 그리고 석기 및 옥기 올빼미 기물¹⁶⁾이 있다. 또 홍산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陶甗, 앙소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陶鷹鼎(陶鷹鼎이라 하기도 한다)¹⁷⁾과 앙소문화의 도기 중 올빼미의 크고 둥근 두 눈과 면반(面盤), 부리가 잘 표현된 원형 鴞面(鴞頭陶塑)¹⁸⁾도 이 시기의 대표적인 鴞形器物로 꼽힌다. 이밖에도 올빼미 석화나 화상석(畫像石)도 발굴되었다.¹⁹⁾ 이는 신석기시대 중국 내의 여러 문화에서 올빼미에 대해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올빼미를 경외하거나 숭배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올빼미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념과 인식은 어떤 형태로든 후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시기의 올빼미 기물은 발굴이 없는 가운데 상대에 들면서 비로소 다시 청동기와 옥기를 비롯한 기물에 다수 등장한다. 특히 청동기물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문양도 아주 정교해져서 청동기의 발달이 최고의 수준에 이른 시기인 상대 중 후기에 오면 청동예기 중 酒器인 尊(尊)이나 卣(提梁卣)에 올빼미 형태의 기물이 다수 보이고,²⁰⁾ 이밖에 簋(簋), 觥(觥), 卣(卣), 觥(觥), 觥(觥)

15) 섬서성 화현(華縣) 출토 앙소문화, 감숙, 청해성 마자방문화, 요하유역 홍산문화, 장강유역 석가하문화, 산둥 용산문화, 절강 양저문화 등에서 이들 유물이 두루 발굴되었다. (같은 논문, 13-24쪽)

16) 주요 옥기로는 홍산문화 지역에서 출토된 다량의 옥올빼미(玉鴞)와 녹색석올빼미(綠松石鴞), 절강 양저문화 출토 올빼미 형상 옥조(玉鳥)와 옥중(玉琮), 옥황(玉璜) 등이 있다. (같은 논문, 13-24쪽) 이중 특히 옥중(玉琮)과 옥황(玉璜)은 고대 중국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물이다.

17) Baidu(<https://www.baidu.com/>)에서 ‘紅山文化陶甗’과 ‘仰韶文化陶鷹鼎’(또는 ‘新石器时代陶鷹鼎’)으로 검색 가능하다.(최종검색일:2021.12.15.) 刘敦愿(1979, 222쪽)에도 陶鷹鼎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다

18) 구글에서 ‘鴞面 - 北京大学赛克勒考古与艺术博物馆’로 검색 가능하다.(최종 검색일:2021.12.15.) 刘敦愿(1979, 222쪽)에도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다

19) 饶胜, 앞의 논문, 8쪽.

20) 이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卣(提梁卣)는 두 마리의 올빼미가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로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반면, 올빼미형 尊(鴞形尊)은 제량유

등의 기물에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한 크고 둥근 두 눈과 눈 주위의 면반(面盤), 날카로운 부리와 머리 위에 빨같이 솟은 모각(毛角), 넓고 접힌 날개 등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올빼미 문양이 등장한다.²¹⁾ 더불어 은허 부호묘에서 출토된 다량의 옥기 등에 올빼미 형상도 여럿 보인다.²²⁾ 또 대만 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리석 석조 2건과 흑도로 제작된 효준(鵝尊) 1건도 있어 이 시기에 석기와 도기에도 올빼미형 기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²³⁾ 당시 청동기는 일반인의 생활도구가 아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의 상징물로 권위와 고귀함을 나타냈으며 종교 신앙을 장악한 통치계급의 기물이었던 바, 이러한 기물에 올빼미가 단독 형상 내지 주요 문양으로 빈번히 등장했다는 것은 상대에 올빼미가 신성한 동물로 숭앙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²⁴⁾ 그러한 이유를 어느 한 가지에 국

(提梁卣)와 같이 전신 입상이면서도 각자 특색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중 5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鵝形尊과 提梁卣의 이미지는 刘敦愿(1979, 224-226쪽)에 첨부되어 있다.

- 21) 이들은 대체로 精致하고 독특한 고급기물로 보이는데, 李学勤(2005, 48쪽)에 따르면 “준과 유 혹은 준과 방이의 짝은 고대의 존귀한 술그릇”이며, “핑에는 대부분 생동감 있는 동물문양이 있고 아주 정치하게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 상당히 중요한 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위의 글 46쪽) 또 鵝形尊과 같은 犧尊은 “옛날 청동기에서 확실히 특수한 形制”이며(王輝 2013, 761쪽), 鵝形卣도 犧尊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한편 이들 기물은 다수가 해외로 유출되어 해외 유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李学勤(2005, 94쪽)은 “외국으로 유출된 상대 유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청동기들이 많은데, 이들 모두 은허에서 출토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고 있다.
- 22) 상대의 옥기에서 올빼미 형상의 기물은 佩物로 생각되며, 형태나 조각기법에 있어 입체형(圓彫)과 평면조각(浮彫) 모두가 발견된다. 이들은 불과 몇 cm 크기의 소형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어 몸에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23) 饶胜, 앞의 논문, 29-30쪽.
- 24) 이는 문자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王仁湘(2014)에 따르면, 고문자학자인 康殷은 《古文字形发微》에서 “翟”, “翟”, “翟” 등의 갑골문자의 고증을 통해 모두 원시시대부터 商代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올빼미를 숭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거의 처음부터 발견되는 古文 중의 각종 觀字는 모두 올빼미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들 글자(“翟”, “翟”)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모두 빨(깃털 빨)이 묘사되어 있어 이들이 빨 올빼미의 일종을 묘사한 글자임을 짐작하게 된다.

한해 찾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²⁵⁾ 최근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상대에 올빼미는 商민족의 조상숭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알려진 바와 같이 商민족은 고대로부터 새 숭배 문화가 널리 퍼져있던 북방 및 동이 계통의 민족으로, 갑골문의 해독을 통해 보더라도 상족의 먼 조상(高祖)들의 이름에는 이러한 새 숭배의 흔적이 나타난다.²⁷⁾ 더불어 이들에게는 상민족의 탄생과 관련해 玄鳥신화가 있는데,²⁸⁾ 근래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상대에 제비 기물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올빼미 기물이 빈번하게 출토되는 것으로부터 玄鳥를 제비가 아닌 올빼미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참고할 때, 상인들에게 올빼미는 조상신화

25) 이연승(2021, 68쪽)은 <구장(鳩杖): 노인에게 부여하는 황제의 권위-한대 왕장제(王丈制)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전사(前史)시대 중국 전역의 고고유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역시 오류를 야기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6) 상대에 있어 올빼미가 무엇을 상징했는지에 대한 刘敦愿(1979) 이후의 연구결과는 饶胜(2016, 2-3쪽)에 소개되어 있다. 대부분 상대에 올빼미 숭배 또는 토템이 있었다는 내용들로 다수의 논문에서 <詩經·玄鳥>에 나오는 ‘天命玄鳥, 玄鳥生商’ 신화속의 玄鳥가 올빼미이거나 올빼미가 현조의 원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孫新周(2004, 35-36쪽)에 따르면, 상민족의 高祖 夔(帝俊, 帝嘗, 舜)의 原型은 올빼미의 토템이며, 그것은 商民族의 생식신(生殖神), 농업보호신, 태양신이다. 이는 농경사회에서의 태양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태양신의 사자로 여겨진 올빼미와 商人들이 한 해의 시작이라 본 동지, 현조, 태양 등은 하나로 연결된다. 또, 何努(1986, 64쪽)에서는 올빼미가 상대 주요 씨족들의 초기 족휘였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27) 윤창준(2002, 186쪽)은 徐中舒와 胡厚宣의 연구를 참고해, “주목할 점은 (商의 高祖인) 王亥의 뜻으로 쓰인 ‘亥’字 중에는 ‘隹’나 ‘鳥’를 편방으로 추가한 자형이 보이며, 이러한 자형의 ‘亥’는 先公을 지칭하는 專用字로만 출현한다는 점이다. …… 高祖 王亥를 지칭하는 ‘亥’字는 ‘鳥’나 ‘隹’를 추가하여 썼다.”라고 하고 있다.

28) “하늘이 제비에게 명하여 내려와 상나라 조상을 낳았다(天命玄鳥, 降而生商)”(<詩經·商頌·玄鳥>), “은나라의 시조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라 하였으며, 유융씨 부족의 딸로 제국의 두 번째 부인이다. 세 사람이 목욕을 갔다가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주어 삼켰는데 잉태하여 설을 낳았다.(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史記·殷本紀>)

와 관련된 신성한 새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²⁹⁾ 그러나 설령 이들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빼미는 그 독특한 모습과 야금으로서의 특징으로부터 비상한 신비적 힘이 부여된 새로 인식되는 동시에 이 세상과 저 세상, 또는 영혼들의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며³⁰⁾ 이로써 祭器인 청동예기에 주요 문양의 하나로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올빼미는 밤의 신과 꿈의 신의 상징으로 인생의 “긴 밤(사후 세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올빼미 기물이 사용된 것을 설명해준다.³¹⁾ 한편 이와 같은 단독 형상의 올빼미 기물이나 전형적인 올빼미 문양은 주대로 들어가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³²⁾ 아울러 서주시기의 작품인 《시경》에서부터 시작해 올빼미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춘추전국시대로 가면 서 추하고 불길한 새로서의 이미지가 확고해져 그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29) 黃厚明·陈云海(2005, 34쪽)는 은상대 사람들이 올빼미가 밤에 돌아다니는 조상의 혼을 태워 비행하는 밤의 새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눈에 올빼미가 조상의 화신으로 여겨졌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饶胜(2016, 57쪽)은 “은상대의 올빼미 숭배는 실제로 그들 선조에 대한 숭배였다”고 단정했다.

30) Christian Deydier, *Understanding Ancient Chinese Bronzez*, 2015, 127. 한편 이장웅(2019, 373쪽)에 따르면, 새는 “신화와 제사 의례 속에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조상신과 연결되며,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장송 의례에 사용되거나, 곡령신을 불러다 주는 매개체로 농경의례에 사용되면서 매우 신성시되었다.”

31) Christian Deydier(2015, 126쪽)에 따르면, 상 중·후기의 왕인 武丁의 묘와 묘실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올빼미 조각품이 있는데, 이는 올빼미가 악하고 불길한 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상대 사람들이 믿었음을 알게 한다고 했다. 李学勤(2005, 149쪽)도 은허 허우자왕 시베이강의 두 대형 묘에서 석조(石觶) 도철 한 쌍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짝을 이루는 석조 올빼미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32) 이는 漢代의 묘에서 다시금 출토되는데, 이의 특징은 부장품으로 제작된 도기에서 다량이 출토된다는 것이다. 饶胜(2016, 49쪽, 57쪽)에 따르면, 이는 주로 하남성과 내몽고지역에서 출토되며 鶯俑과 鶯壺로 구분되는데, 당시 정치 중심지역 내 혹은 상층계급의 묘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고 평민의 묘에서만 출토되었다고 해 당시 올빼미 숭배가 민간에 남아 있다가 이 시기에 부장기물로 제작되어 매장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아낸다.

IV. 주대 이후의 올빼미

앞 장에서 신석기시대와 상대에 걸쳐 올빼미에 대한 그 시대의 이미지를 기물을 통해 유추해보았다. 이러한 올빼미 기물, 특히 청동기물은 주대에 들어서면 크게 감소해³³⁾ 앞 장에서 살펴본 두드러진 형태의 올빼미 기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³⁴⁾ 또한 옥기의 경우도 주대 초기에는 발굴된 것이 다수 있으나³⁵⁾ 중기로 가면 갑작스레 줄어들어 그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³⁶⁾ 서주시기의 청동기물의 문양을 살펴보면 주대는

- 33) 서주대의 청동기나 옥기는 초기, 중기, 만기로 시기를 구분하는데, 李学勤(2005, 98쪽)은 서주시대의 구분과 관련해 “서주시대 초기는 무왕과 성왕, 강왕, 소왕까지의 4대를 이른다. 또 목왕부터 공왕, 의왕, 효왕까지는 서주시대 중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에 근거하면 서주 초기는 BC1046년에서 BC976년까지 대략 70년을, 중기는 BC976년에서 BC886년까지 대략 90년을 일컫는다.
- 34) 이는 당시 청동기물들을 두루 찾아 살펴보다 보면 느끼게 된다. 참고로 郭廉夫 主编, 《中國文樣辭典》(1998, 211쪽)에서는 ‘鴞紋’에 대해 “이 문양은 은허시기의 청동기에서만 발견된다. 올빼미 문양의 기물과 함께 올빼미 형체를 취한 기물이 있다. 주대의 기물에서는 아직껏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饶胜(2016, 31쪽)도 “고고학적 자료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서주의 올빼미형 기물(鴞形器)의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단지 서주 초기에 집중된다. 서주 초기 이후는 아주 적다. 서주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올빼미에 대한 인식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서주 이후 출토는 거의 없다. 서주의 효형기는 주로 옥기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 35) 서주시대의 효형옥기는 王文浩·李红의 《西周玉器》(2006, 51-88쪽)의 새(鳥)편에 30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형태에 있어 饶胜(2016)에 소개된 상대의 올빼미 형상 옥기(위의 글 29쪽)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서주 들어 특별히 새로운 형상의 올빼미 옥기가 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李学勤(2005, 97쪽)은 “서주시대 초기 청동기 연구에서 적지 않은 상대 청동기들이 서주의 기물과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 佩飾인 옥기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다.
- 36) 王文浩·李红(2006, 52쪽)은 “서주는 초기에 옥기 유형에서 모양에 이르기까지

초기에서 시작해 중기까지 봉황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³⁷⁾ 초기만 하더라도 상대를 계승한 도철문양은 청동기에서 다수 등장하지만 두드러진 올빼미 형상이나 문양이 드문 것은 무엇이 원인인든 올빼미가 상대에서와 같이 존승적 지위를 잃었고 어쩌면 기피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한다.³⁸⁾ 이는 서주시대 이후 문헌기록을 볼 때 더욱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 장에서는 《시경》에서 출발해 이들 문헌을 통해 서주 이후의 올빼미 이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대에 올빼미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는 《시경》이 있다. 현재 《시경》에 수록된 시 중 올빼미가 등장하는 시로는 〈빈풍(邠風)·치효(鴟鵂)〉, 〈진풍(陳風)·묘문(墓門)〉, 〈대아(大雅)·첨양(瞻仰)〉, 〈노송(魯頌)·반수(泮水)〉의 4편이 있다. 또 逸詩로 《좌전》에 언급된 ‘모치(茅鴟)’시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올빼미들은 모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먼저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거의 완전히 은상을 계승했다. 중기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올빼미다.”라고 하고, 이어 “일부 사람들은 이 시기에 들어 청동기와 옥기에서 올빼미 장식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올빼미가 상나라 사람들의 토텐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37) 봉황문양은 상대의 청동기에서 이미 분명히 나타나지만 주대로 오면 초기부터 주요 문양으로 등장하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上海博物館 사이트에 서주시기 봉황을 주 문양으로 하여 제작한 銅器의 대표적 작품으로 ‘父庚觶’를 소개한 글에 “서주 초기부터 새 문양은 점차 증가했으며, 이는 종종 기물의 주제 문양이 되었다. 그 형태는 점점 아름답게 발전했으며, 특히 강왕(康王)과 소왕(昭王) 시기에 그러했다. 상대의 꼬리가 짧은 봉황에 비해 서주대의 봉황 문양은 보다 긴 꼬리와 높은 관(冠)을 갖는다.”고 했다.(<https://www.shanghaimuseum.net/mu/frontend/pg/m/article/id/CI00000579>. 최종검색일: 2021.12.15.)

38) 李學勤(2005, 151쪽)은 “서주시대부터 청동기 문양의 신비적 색채는 점차 시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상대에 청동예기의 주요 장식이었던 도철문이 차츰 사라지고, 수많은 신화적 의미를 갖는 동물들이 청동기의 표면에 복잡하게 나타나던 것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주 초기에는 도철문이 청동기의 장식으로 빈번하게 등장해 두드러진 올빼미 형상 또는 문양의 기물이 사라진 것과 비교된다.

부엉아, 부엉아! (鴟鴞鴟鴞)
 내 새끼 이미 잡아갔으니(既取我子)
 내 등주리를 부수지는 말아다오(無毀我室)
 사랑과 정성 다 바쳤단다(恩斯勤斯)
 어린 자식 가엾구나(嚮子之閔斯)

--〈邠風·鴟鴞〉

이 시에서 부엉이(올빼미)는 화자인 어미 새의 새끼를 잡아갔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리려고 위협하는 나쁜 새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묘문 밖 매화나무에(墓門有梅)
 올빼미 모여들었네(有鴟萃止)
 저 이의 불량함을(夫也不良)
 모여 노래함으로써 알게 하네(歌以諷之)
 그래도 돌아보지 않으니(諷之不顧)
 다급하면 날 생각하리(顛倒思予)

--〈陳風·墓門〉

이 시의 첫 장은 “묘문 밖의 대추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있네. 저 이의 착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네”이다. 따라서 여기서 올빼미는 시중의 ‘저 이’의 불량함을 드러내기 위해 빌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39) “〈모시서〉에 ‘부엉이(鴟鴞)’ 시는 주공이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른 노래라 하였다. 올빼미는 뜯소문을 퍼뜨려 주공을 모함한 자들에 비유하고 영성한 등주리는 어지럽고 불안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학주 역저, 《새로 옴긴 시경》, 2010, 428쪽) 참고로, 이 시는 《서경·주서·금등》에 주공이 지은 시라고 언급되어 있다. 근래 《청화간·금등》이 출토됨으로써 이 시가 쓰인 시기를 비롯해 이 시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40) “이 시는 행실이 좋지 못한 자기 애인을 원망하는 시이다. 〈모시서〉에서는 진타(陳佗, 진 문공의 아들)를 풍자한 것이라 하였다. 매화나무는 살기 좋았던 진 나라에, 올빼미는 이곳의 ‘불량한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김학주 2010, 392쪽)

깊은 계락을 지닌 사내는 나라 세우지만(哲夫成城)
 깊은 계락을 지닌 여인은 나라 망치네(哲婦傾城)
 아아, 지혜 많은 여자가(懿厥哲婦)
 올빼미나 올빼미 같은 짓 하고 있네(爲梟爲鴟)
 여자에겐 긴 혀가 있어(婦有長舌)
 화란을 일으키고 있네(維厲之階)
 화란은 하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亂匪降自天)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네(生自婦人)
 가르쳐도 안 되고 깨우쳐도 안 되는 이가(匪教匪誨)
 총애받는 여인이네(時維婦寺)

--〈大雅·瞻卬〉

여기서는 나라를 망치는 여인을 올빼미에 비유하고 있어 올빼미(鴟梟)가 화란을 일으키는 나쁜 짐승으로 인식되고 있다.⁴¹⁾

푸드득 나는 올빼미(翩彼飛鴟)
 반궁 숲에 모였네(集于泮林)
 우리 오디 따먹고는(食我桑黹)
 우리의 호의를 생각하네(懷我好音)
 잘못 깨달은 저 회이(憬彼淮夷)
 와서 보물을 바치니(來獻其琛)
 큰 거북과 상아와(元龜象齒)
 남쪽에서 나는 금이로다(大賂南金)

--〈魯頌·泮水〉

여기서 올빼미는 당시 비하의 대상인 회이(淮夷)를 올빼미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41) “이 시는 서주 말기의 유왕이 소인을 임용하여 나라를 어려움과 기근에 빠뜨렸음을 풍자한 시이다. <모시서>에서는 범백(凡伯)이 유왕이 나라를 크게 그릇치고 있는 것을 풍자한 시라 하였다.” (김학주 2010, 845쪽) 본 장만을 본다면, 유왕이 그의 비 ‘포사’를 지나치게 총애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존 《시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左傳》襄公二十八年에는 ‘茅鴟(올빼미)’라는 시 한 편이 전하는데 현재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좌전》의 관련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숙손목자가 경봉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경봉이 食祭를 행하는데 공경스럽지 못하므로 숙손목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樂工으로 하여금 <모치>시를 읊게 하자 경봉은 그 뜻도 알지 못했다(孫穆子食慶封, 慶封汜祭, 穆子不說, 使工爲之誦茅鴟, 亦不知.)

여기서 食祭는 고대의 禮로, 음식을 들기 전에 먼저 소량의 음식과 술로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치’시는 올빼미를 빌어 무례한 사람을 풍자한 시로 생각된다.

이상 현존 《시경》과 《좌전》의 기록을 통해 서주 및 춘추 중기 이전에 올빼미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올빼미에 관한 가장 이른 문헌 기록으로, 문헌기록상 이 시기에 올빼미는 이미 신성하거나 좋은 이미지가 아닌 나쁜 이미지의 새로 비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시대 이후로 가면 올빼미가 추하고 상스럽지 못한 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⁴³⁾ 《莊子·秋水》에서는 여기서 세속적인 권세를 친구에게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인물로 묘사된 혜자를 풍자하는 과정에

42) “<모치서>에서는 노나라 희공이 반궁(泮宮)을 잘 건사하였음을 노래한 것이라 하였다. 또 屈萬里는 “이 시는 시중 반궁에 있어서의 노나라 제후의 일을 읊고 있으니, 노후가 회당의 오랑캐를 정벌한 뒤에 석채(釋菜)라는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기·왕제》에는 “출정하여 반역자들을 잡으면 학궁(學宮)에서 석전을 지내며 적의 귀 벤 것을 바치고 포로들을 심문한다.”고 하였다.(김학주 2010, 906쪽) 한편 《毛傳》에서 “올빼미는 듣기 나쁜 소리를 내는 새다(鴟, 惡聲之鳥也.)”라고 하였으며, 漢語網사전에서는 ‘泮鴟’에 대해, “《詩·泮水》가 출전이며 泮林의 올빼미를 말한다. 泮林의 오디를 먹고 그 추한 소리를 고칠 수 있고, 감화가 가능함을 비유한다.”고 풀이하였다.

43) 일차로 劉敦愿(1979), 黃厚明·陳云海(2005) 등을 참고하고, 해당 문헌의 원문을 찾아 확인했다.

서 썩은 귀를 얻은 올빼미가 원추(봉황)가 지나가자 빼앗길까봐 올려다보면서 '꽤'하고 소리치는 것을 비유로 말함으로써 올빼미를 폄하하고 있고, 《荀子·賦篇》에서는 “천하가 험악하니, 세상의 영걸을 잃을까 두렵네. 이룡(螭龍)이 도마뱀붙이인 수궁(蝮蛇)이 되었고, 올빼미가 봉황이 되었네.(天下幽險, 恐失世英. 螭龍爲蝮蛇, 鴟梟爲鳳皇)”라고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올빼미를 봉황의 대척점에 놓아 폄하하고 있다. 또 《楚辭·憂苦》에서는 “취녕쿨과 등나무녕쿨(나쁜 풀들)이 계수나무를 휘감고 있고, 올빼미가 목란에 모여 앉았네.(葛藟藟於桂樹兮, 鴟鴞集於木蘭.)”라고 하여 굴원 당시 어질고 충성스런 사람은 버려지고 훼손되며, 올바르게 못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소중히 여겨져 중용되는 상황을 한탄함에 있어 올빼미로 후자를 비유했다. 또한 춘추시대 제나라 인물인 안자의 언행을 모아 후세 사람이 기록하여 편찬한 《晏子春秋·內篇雜下》에는 제나라 경공이 路寢의 누대를 지어 완공되었는데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를 불길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漢書·賈誼傳》에는 “가의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로 좌천된 지 3년째에 올빼미의 일종인 服이 거처에 날아 들어와 방구석에 앉자 賦를 지어 스스로 상심하기를 ‘野鳥가 집안에 들어오니 나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野鳥入室, 主人將去)’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춘추시대 이후 올빼미 울음이나 올빼미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음을 알게 한다. 한편 《史記·屈原賈生列傳》에는 가의가 상수(湘水)를 지나면서 賦를 지어 굴원을 애도한 글에 “난새와 봉황이 없드려 숨고 올빼미가 활개를 치는구나. 졸렬한 자가 존귀해지고 아첨하는 자들이 뜻을 얻는구나.(鸞鳳伏竄兮, 鴟梟翱翔. 闔茸尊顯兮, 讒諛得志)”라 하고, 《管子·封禪》에는 “지금은 봉황과 기린이 오지 않고, 좋은 곡식도 나지 않으며, 들녘에는 썩과 명아주만 무성하고, 올빼미들만 날아다니, 이런 상황에서 봉선을 하시고자 함은 불가한 줄로 압니다.(今鳳凰麒麟不來, 嘉穀不生, 而蓬蒿藜莠茂, 鴟梟數至, 而欲封禪, 毋乃不可乎?)”라고 하여 올빼미에 대한 폄하와 혐오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밖에도 한나라 주목(100~163)의 <류백종과 절교하며>라는 시⁴⁴⁾를 보더라도

도 당시 올빼미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쪽 산의 올빼미(北山有鴟)
 그 날개가 더럽구나(不潔其翼)
 똑바로 날지도 않으며(飛不正向)
 제대로 쉬지도 않는구나(寢不定息)
 배고프면 어린 새 잡아먹고(饑則木斃)
 배부르면 늪에 앉아 쉬는구나(飽則泥伏)
 식탐이 도칠(饕餮)과도 같아(饕餮食汙)
 비리고 고약한 음식들도 잘만 먹는구나(臭腐是食)

—朱穆, 〈與劉伯宗絕交詩〉

한편 올빼미는 이에 더해 불효한 새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지게 되는 데, 45) 《史記·孝武本紀》에 “어떤 사람이 상서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고대에 천자는 항상 봄에 재앙을 없애는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黃帝)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효조(梟鳥), 과경(破鏡)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사관(祠官)에게 상서(上書)를 올린 사람의 방법을 따르도록 명했다.”고 했다. 관련해 《集解》를 보면 “梟는 새 이름이다. 어미를 잡아먹는다. 破鏡은 짐승 이름이다.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黃帝가 그 종류를 절멸시키고자 하여 그것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했다. 또 동한 응소가 쓴 《漢官儀》에는 “夏至에 百官들에게 올빼미탕(梟羹)을 하사하였는데, 그 종류를 절멸시키고자 함이다.夏至에는 음기가 약해져 만물을 기르기 시작하며, 이때 올빼미가 그 어미를 해치기 때문에 이 날 그것을 죽인다.(《漢官儀》云, 夏至賜百官梟羹欲絕其類也. 夏至微陰始起育萬物, 梟害其母, 故此日殺之.)” 46)고 했다. 《史記·武帝本紀》注에서 如淳의 말을 인용하여

44) 주목의 친구인 류백종이라는 자가 주목보다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서 주목에 대해 무례하게 대하자 올빼미를 빌어 풍자한 시다. 원문은 Baidu 汉语(<https://hanyu.baidu.com/>) ‘與劉伯宗絕交詩’를 참고했다.

45) 《說文》에 “올빼미는 불효한 새다.(梟, 不孝鳥也)”라고 했다.

46) 《類書集成·淵鑿類函》第四百二十七卷, 鵂鳥의 해당 글 참조함.

‘漢나라 때 使東郡(지금의 하북성 남부, 산둥성 서북부)에서는 올빼미를 잡아 5월5일 올빼미탕을 백관들에게 하사했는데, 이는 싫어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었다’고 했다.(《史記·武帝本紀》注引如淳言“漢使東郡送梟, 五月五日爲梟羹以賜百官. 以惡鳥, 故食之.”)라는 기록이 있어 올빼미가 터무니없는 허구의 죄명과 박해를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다.⁴⁷⁾ 이 상에서 볼 때, 서주 이후 문헌에 나타나는 올빼미의 이미지는 상대의 유물을 통해 보는 신성하고 존송받던 동물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부정적이며 불길한 새의 이미지가 고착되었으며 터무니없는 오명까지 씌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올빼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후 계속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빼미 효(梟)자가 들어간 어휘들의 과거 용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한편 劉敦愿(1979)은 중국 고대에 있어 사람들의 올빼미에 대한 관념에 대해 말하면서 “올빼미류의 맹금은 威猛을 상징하며 군사행동과 관련해 전쟁승리의 상징”이라고 했는데,⁴⁸⁾ 이러한 인식은 위의 올빼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고착되면서 다소 희석된 것 같지만 한동안은 이어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劉敦愿(1979)은 “남북조시기 송나라 유경숙(劉敬叔)의 《異苑》에 ‘涼州의 張重華가 謝艾를 파견하여 麻秋를 정벌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밤에 올빼미 두 마리가 牙中에서 울었다.艾가 올빼미는 邈이다. 六博에서 올빼미를 얻으면 승리하는데, 지금 牙中에서 올빼미가 우니 승리할 징조라고 말했다. 과연 그를 크게 격파하였다.’(《資治通鑒》도 이 일을 인용하였는데, 東晉 永和二年, 즉 346년의 일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를 증거한다”고 했다. 또 “梟가 중시를 받은 것은 관직 명칭과 일반적인 관용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史記》에 西

47) 劉敦愿(1979, 220쪽)은 이에 대해, “한대 사람들은 또 효성스런 까마귀가 어미를 봉양한다고 해서 어미를 잡아먹는 올빼미와 대비시킴으로써 올빼미를 한 단계 더 폄하했다. 이는 전국시대 올빼미를 봉황에 비유해 폄하한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48) 같은 논문, 217쪽.

漢시대에 '梟騎都尉'라는 무관 관직을 기록하고 있다.(〈惠景間侯者表〉, 〈建元以來侯者年表〉) 후에 '梟騎', '梟將', '梟雄' 등의 어휘가 상당 기간 동안 사용되어, 梟자로 용맹을 나타냈고 나쁜 의미는 없었는데, 이는 옛 의미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음이다"라고 했다.⁴⁹⁾ 그러나 《詩經·大明》에 “목야의 들판은 넓고 넓어/ 박달나무 수레 빛나는구나/ 배가 흰 네 필 붉은 말/ 태사인 강태공/ 마치 매가 날 듯/ 무왕을 도우시어/ 상나라 쳐부수었으니/ 그날 아침은 맑고도 밝았도다”라고 한데서 보듯, 威猛의 상징도 점차 매(鷹)로 옮겨가지 않았나 싶다.⁵⁰⁾

V. 언어 속에 반영된 올빼미의 이미지

한편 올빼미에 대한 주대 이후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랜 세월 언어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몇몇 전쟁과 관련해 긍정적인 것을 제외하면 오랜 왕조시대에 걸쳐 사용된 올빼미가 들어가는 어휘들이 하나 같이 부정적인 의미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소멸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⁵¹⁾ 앞선 시기에 사용되었던 이러한 어휘들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49) 같은 논문, 217쪽.

50) 牧野洋洋 檀車煌煌 駟駟彭彭 維師尚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肆伐大商 會朝清明. 한편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이후 용맹의 상징을 매 보다는 호랑이에서 찾은 것 같다. 이는 매 등의 맹금류에 대한 숭배가 오랜 기간 중국과 대립했던 북방민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몽골에서 출토된 흉노의 금관(鷹頂金冠, 머리 위 장식으로 매가 올라앉아 있다. 전국시대, BC4-3세기)은 이 지역에 새 숭배문화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1) 어떤 특정한 사회나 사회 집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문화 특징이라든가 문화 심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언어라든가 어떤 다른 성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游汝傑·邹嘉彦, 《언어로 본 중국사회》(변지원 역), 차이나하우스, 2008, 277-279쪽)

52) 漢語網사전(<https://www.chinesewords.org>)에서 '梟', '鴞', '鴟'가 들어가는 어

(1) 올빼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사된 어휘들

鴟鴞: 탐욕스럽고 악한 인간, 또는 소인을 비유함

梟鳥: 악인이나 불효한 자식을 비유함

梟鴞: 일반적으로 악한 새를 가리킴

梟族: 사악한 무리

梟徒: 폭도

梟賊, 梟驚: 흉폭하고 모진 도적 또는 무리

鸞梟: 흉악하고 모진 인간을 비유함

梟音(鴟音): 사악한 소리, 극악한 소리. 흉악, 흉포한 인간을 가리킴

鴟響: 올빼미가 우는 소리. 악인이 시끄럽게 불평대고 투덜대는 소리

鴟視: 올빼미가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다. 흉악하고 이익을 탐하는 눈빛

梟張(鴟張, 鴟張): 올빼미의 큰 날개. 미칠 듯이 날뛰고 방자함

梟惡: 흉악

梟薄: 무정하고 각박함

梟心: 흉심, 야심

梟猶: 간사한 피로 남을 속임

梟亂: 어지럽히고 혼란시킴

梟桀: 성정이 모질고 사나움

梟磔: 올빼미가 사냥한 동물을 쪼고 찢다. 극단적으로 잔학함

梟悖: 반역

梟棍: 불한당

梟笑: 수상쩍은, 섬뜩한 웃음

鴟義: 양심을 저버린 행위

鴟王: 올빼미의 왕. 흉폭하고 모질며 전횡을 일삼는 통치자를 비유

湖梟: 호수를 점거하고 어민들을 착취하는 인간

鴟鳥生翼: 은혜를 망각하고 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비유

휘들을 검색해 보았다.

鴟鵂弄舌: 소인이 시비를 부추기고 위세를 부림

衣冠梟獍: 불효한 인간을 비유

衣冠土梟: 인품과 덕성이 다 무너지고 행위가 비열한 인간

鴟張門戶: 파벌을 수립하여 당파를 내세움

鴟溝: 더러운 하수구

(2) 올빼미와 다른 동물을 나란히 열거하거나 대비시켜 올빼미의 나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올빼미를 비하한 표현들

梟鸞: 惡鳥인 올빼미와 神鳥인 난새(鸞). 악과 선, 소인과 군자를 비유

梟獍(梟鏡): 은혜를 망각하고 의를 저버리거나 악독한 인간

(올빼미는 악한 새로 자라나 어미를 잡아먹고, 獍은 악한 짐승으로 자라나 아버지를 잡아먹음)

梟狼: 흉악한 무리

梟鯨: 올빼미와 고래. 강대하고 흉악한 세력

梟蛇鬼怪: 추악한 무리

鴟鳴鼠暴: 악인이 기세 사납게 날뛴을 비유

鴟視狼顧: 올빼미처럼 머리를 들어 보고, 이리처럼 돌아다 보다. 흉포함

鴟目虎吻: 생김새가 음험하고 흉악함

鴟張魚爛: 겉으로는 오만방자하고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짐

化梟為鳩: 흉험하던 것이 평안해짐을 비유

鳳梟同巢: 신성한 새와 악한 새가 한 우리에 동거함.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혼재함을 비유

梟心鶴貌: 마음은 악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것을 비유

鴟心鸞舌: 올빼미의 마음과 피꼬리의 소리. 마음은 악독한데 말은 감동적으로 잘함

(3) 올빼미의 불길한 이미지가 투사된 어휘

梟星: 불길한 점괘(星命)

梟鳴: 울빼미의 울음. 불길한 조짐으로 받아들여짐

(4) 武勇과 관련해 중립적이거나 좋은 의미로 쓰인 어휘

梟勇: 용맹

梟將: 용맹한 장수

梟帥: 용맹한 수령

梟風: 용맹한 기풍

梟騎: 용맹한 기병

鷓鴣(鷓鴣): 기세가 맹렬히 서로 대립하다

梟捷: 사납고 민첩하다

鷓鴣(鷓): 용맹하고 사나운 울빼미.

梟俊禽敵: 적을 죽이고 승리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4]의 전쟁과 관련해 쓰인 몇몇 어휘를 제외하면 울빼미를 나타내는 효(梟), 효(鷓), 치(鷓)가 들어간 어휘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鳳이 들어간 어휘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상황이나 조짐, 사물이나 인물 등 대상 또는 기물과 관련하여 ‘和平’, ‘和樂’, ‘秀美’, ‘吉/祥瑞’, ‘珍貴’, ‘高貴’, ‘氣品’, ‘尊貴’, ‘非凡’ 등과 같은 뜻이 담겨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인류 역사상 각지의 문명에서 나타난 울빼미의 이미지에 좋고 신성한 것과 동시에 부정적이고 불길한 것이 담겨있기는 하나, 이는 정도가 매우 심하며 특히 신석기시대와 상대에 이르기까지 존송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울빼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를 주대 이후 울빼미에 대한 경외의 감정과 숭배가 사라짐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무엇이 있을지를 모색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출토기물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중국 고대에 있어 올빼미의 이미지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와 상대에 올빼미는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다가 서주대로 들면서 이에 큰 변화가 생겨 춘추전국시대와 한대에 들면서 올빼미는 악하고 추하며 불길한 새로 그 이미지가 고착된 것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후대에까지 언어상에 뚜렷이 나타난 것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였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아 이를 사람들의 인지가 깨어남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는 시각⁵³⁾과 이러한 변화를 서주 초기의 역사 상황과 결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각⁵⁴⁾이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시각이 자못 흥미로운데⁵⁵⁾ 그럼에도 이들 주장의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균형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물상의 변화를 세세히 살피는 동시에 다방면에 걸친 많은 연구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간단치 않은 작업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았다.

그동안 본 주제에 대해 국내에 소개와 관련 연구가 별로 없었던 만큼

-
- 53) 刘敦愿(1979, 219쪽)은 “올빼미류는 서주와 춘추시대에 이르러 일반 맹금류로 여겨져 종교 숭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니 사상적 해방 측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해 이 시기 들면서 청동예기에서 올빼미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의 합리적 의식이 깨어남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았다.
- 54) 马银琴(2006)은 올빼미를 은상민족의 토착으로 보고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력으로 멸망시킨 후 상나라 사람들을 절멸시키는 길 대신 상 문화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예악의 주 문화 창출을 통해 이들을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 55) 주대 이후 지나칠 정도로 부정 일반도로 치우친 올빼미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역사상 특정 시기에서의 我, 彼の 구분에서 彼에 대해 축적된 부정적 인식이 올빼미에 그대로 투영되었다가 이러한 인식이 시대가 흐르면서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어 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미흡하지만 본고를 통해 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기를 바라며 청동기나 옥기 등 기물과 고대 신화, 민속학, 고문자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전문가들의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본고를 준비하면서 청동기와 옥기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이든 기초 자료가 중요함을 새삼 절감했다. 이 분야의 기초가 되는 문헌을 저술하고 해외의 이러한 자료를 번역 출간해준 분들께 감사한다.⁵⁶⁾

<참고문헌>

- 가이즈카 시게키·이토 미치하루, 《중국의 역사 - 선진시대》(배진영·임대희 옮김), 혜안, 2011(원서: 2000).
- 김학주 역주, 《새로 옮긴 시경》, 명문당, 2010.
- 김학주 역주, 《새로 옮긴 서경》, 명문당, 2012.
- 김현주, 《토테미즘의 흔적을 찾아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리펑(Li Feng), 《중국 고대사》(이청규 옮김), 사회평론, 2017(원서: 2013)
- 서유원(2004). 〈中國 始祖神話의 특징과 玄鳥神話의 고찰〉. 《중국어문논역총간》 13.
- 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 《중국 서안의 문화유산 청동기》(중국 문물전문번역팀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5(원서: 2005).
- 시안시문물보호고고학연구소 엮음, 《중국 서안의 문화유산 옥기》(중국문물전문번역팀 옮김), 한국학술정보, 2016(원서: 2004).
- 심재훈, 《청동기와 중국 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王輝, 《商周金文》(下)(곽노봉 옮김), 학고방, 2013(원서: 2006).
- 游汝傑·邹嘉彦, 《언어로 본 중국사회》(변지원 역), 차이나하우스, 2008 (원서: 2004).

56) 세심하게 본고를 살펴보고 조인해 준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한다.

- 윤창준, 〈甲骨文에 반영된 商王朝의 새 토템 考察-古代 中國人の 思维方式 探索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17집, 2004.
- 이연승, 〈구장(鳩杖): 노인에게 부여하는 황제의 권위-한대 왕장제(王丈制)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9, 2021.
- 이장웅, 〈한국 고대의 새(鳥類) 관념과 의례〉, 《한국고대사탐구》 31, 2019.
- 李学勤, 《중국청동기의 신비》(심재훈 옮김), 학고재, 2005(원서: 1995).
- 張光直, 《중국 청동기 시대》(상, 하)(하영삼 옮김), 학고방, 2013(원서: 1983).
- 페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케임브리지 중국사》(이동진·윤미경 옮김), 시공사, 2010(원서: 1996).
- 陈鷲杰, 《商代鸛鵲造型青铜礼器的造型研究》, 景德镇大学硕士论文, 2016.
- 冯胜君, 〈也談清華簡《金縢》及《詩·豳風·鸛鵲》所見周初史事〉, 《簡帛》第1期, 2019.
- 郭廉夫 主编, 《中国纹样辞典》, 天津教育出版社, 1998.
- 何努, 〈商代鸛鵲零考〉, 《西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01), 1989.
- 黃厚明、陈云海, 〈中国文化中的猫头鹰信仰〉, 《寻根》 第3期, 2005.
- 刘敦愿, 〈中国古代有关梟类的好恶观及其演变〉, 《山东大学文科论文集刊》 02期, 1979.
- 马银琴, 〈论殷商民族的鸛鵲崇拜及其历史演化〉, 《天问(丙戌卷)》, 江苏人民出版社, 2006. (中国古琉璃網 사이트 게재본)
<http://liuliart.cn/bbs/dispbbs.asp?BoardID=11&replyID=20869&id=4411&skin=0>
- 孫新周, 〈鸛鵲崇拜與華夏歷史文明〉, 《天津师范大学学报》 (05), 2004.
- 饶胜, 《鸛形器研究》, 河南师范大学硕士论文, 2016.
- 王仁湘, 〈另眼观“饗饗”--中国青铜器主体纹样解析〉, 《大众考古》 11期, 2014.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中國考古》 게재본)
<http://www.kaogu.cn/cn/kaoguyuandi/kaogusuib/2014/1212/48577.html>

王文浩、李红,《西周玉器》,蓝天出版社,2006.

殷小亮,〈殷商鸛形器及鸛形纹饰探析〉,《文物鉴定与鉴赏订阅》16期,2018.

Deydier, Christian. *Understanding Ancient Chinese Bronzes*. DeydierHK, 2015.

《晏子春秋》

《爾雅》

《管子》

《漢書》

《春秋左傳》

《史記》

《說文解字》

《荀子》

《莊子》

全国珍贵文物数据库(国家文物局综合行政管理平台): <http://gl.ncha.gov.cn/Industry/Collection-Collection>

河南博物院 藏品精粹: http://www.chnmus.net/sitesources/hnsbwy/page_pc/dzjp/zpjc/list1.html

陕西历史博物馆 馆藏精品: <http://www.sxhm.com/index.php?ac=article&at=list&tid=218>

山东博物馆 馆藏精品: <http://www.sdmuseum.com/collection.html>

上海博物馆 典藏精选: <https://www.shanghaiuseum.net/mu/frontend/pg/collection/antique>

南京博物院 典藏文物: <http://www.njmuseum.com/zh/collectionIndex>

中国国家博物馆 考古发掘品: <http://www.chnmuseum.cn/zp/zpml/kgdjp/>

国立故宫博物院 典藏精选: <https://theme.npm.edu.tw/selection>

< Abstract >

In this paper, we tried to investigate the images on owl in ancient China through the examination of literature and language as well as by way of the study of unearthed wares. For the Neolithic period and the Shang dynasty, when the documents did not exist or were rare, we followed the owl image by way of wares unearthed, and for the West Zhou and subsequent era we examined the literature and the language. For the study, we have added a short introduction on owls and its appearance in human history.

Key Words : 올빼미(owl), 올빼미 이미지(owl image), 효형기물(owl shaped wares), 효형문양(owl pattern), 중국 청동기(Chinese bronzes), 옥기(jade), 도기(pottery), 상(Shang dynasty), 서주(West Zhou).

